

## 사랑과 기억속에 여유와 아량으로 화합과 일치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제11대 사목협의회 퇴임식을 10월21일(주일) 11시 교중 미사중에 교우신자 2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주임 신부님께서 친필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축복감사패 제작하여 수여를 하였고 성가대의 감사 특송이 이어졌다.

이날 본당 (이계철 라파엘)주임신부님은 축사를 통하여 '제11대 사목협의회는 본당 사목활동을 5년간의 평신도 사도직 수행기간에 많은 사업을 무사히 수행과 본당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저가 자필로 전 교우들의 뜻을 담아 축복 감사공로패를 전달하게 되었다.' 다 말씀과 이어 전 사목회장 최태영(아우구스티노)회장은 퇴임사를 통하여 '만남과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있기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함께 다시 굳건히 일어서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애쓰겠습니다. 계절이 익어가는 만추의 들녘에서 풍기는 감미로운 바람소리와 풋풋한 내음의 향연. 그 내음속에는 잃어버린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향수와 그리움 같은 것이 폭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자연을 통하여 들려주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속삭이는 소리와 내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중물과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상처주고 질시하고 반목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일과 실천하지 못할 말의 성찬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온 날을 돌아보면 본당은 서울대교구 중에서 낙후되고 빈궁한 지역에 자리한 본당이라 성전 건축은 꿈도 꾸지 마라 누군가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꿈이라도 꾸면 안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허락된 관리자에 불과 함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말과 같이 우리 모두 서로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보는 아량과 여유를 가집시다.



제12대 사목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목협의회에서 결정된 모든 안건은 그 누구의 강요 없이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 되었으며 책임을 동반한 선택임을 잊지 말고 그 결정이 설사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목위원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한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사목회장 외롭습니다.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사목위원 만이라도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멀찍이 지켜 서서 추이만 바라보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아집에 빠져 살던 지난날을 탈피해 새로운 변화와 아우르는 자세로 주임 신부님을 중심으로 신부님께서 추구하시는 화합과 일치의 본당이 되기 위해 매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당을 위해 능 목묵히 기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로 퇴임사를 하였다.